

# 식·음료 가격 인상 도미노...저물가 기조 흔들

## 햄버거·커피·음료·과자 줄줄이 올라 공공요금·전월세·담뱃값도 상승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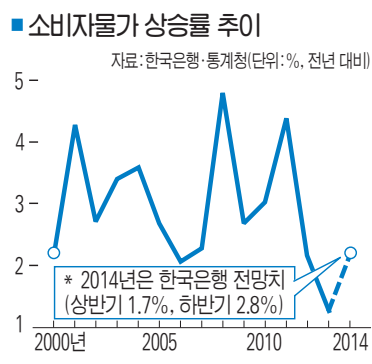
장바구니 물가가 들쭉거리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식음료 업체들이 설 연휴가 끝나자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고, 일부 공공요금은 이미 올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집세와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도 많아 1년 넘게 이어지던 저물가 기조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리아는 오는 14일부터 판매 예정 제품 중 일부 품목 대상으로 100~300원 인상키로 했다. 인상품목은 불고기버거·새우버거 단품 2품목 및 일반 세트류 18품목, 드림크류 6품목 등 총 26품목이다.

앞서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는 지난 7일부터 커피류는 200원, 라떼류는 300원 가격을 올렸다. 아메리카노를 사이지기준 3600원에서 3800원, 카페라떼는 39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도미노피자와 파리아게뜨도 가격을 인상했다.

식음료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오리온,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이 자사 대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농심과 크라운제과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10일부터 칠성사이다(8.3%)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5% 인상했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7%에서 하반기 2.8%로 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013년 12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말월 대비로 3.0% 상승하여 전년 말(1.1%)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올 연말에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은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해 하락세를 기록했던 농산물 가격의 반등과 전월세값 오름세 등으로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요금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상하수도·교통요금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올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승 압력이 크다.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가격 통제'로 눈치를 봐왔던 내수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에 나서기 시작한 것도 가계에 적잖은 주름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식음료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정책에 적극 부응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올리기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최근 3년간의 원재료 시세는 대체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격 인상의 부담함을 지적하고 있다.

매달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분석해온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말 연시를 틈타 개별 원재료의 가격 추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 손쉽게 값을 올려 마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내 CEO 선호 브랜드 롯데백화점·에쿠스·발렌타인

롯데백화점, 현대차 에쿠스, 목에 올랐다. 이밖에 올해의 CEO 명품으로는 갤럭시(양복), 금강제화(정장구두), 갤럭시(S마트폰), SK텔레콤(이동통신), 캐논(디지털 카메라), 코웨이(정수기), 삼성래미안(아파트) 등이 올랐다.

11일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 사장 변형운 서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CEO 20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에쿠스 승용차가 12년 연속 최고 명품 자리를 지켰다. CEO 명품 조사는 올해로 12회째다. 2004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양주 선호도에서는 발렌타인이 11년째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소주는 참이슬이 2년째, 맥주는 카스가 6년째 CEO들의 기호품에 꼽혔다.

## 운행차량 100대 중 5대 수입차

등록비중 5년새 2배로...작년말 90만 4314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사이 배(倍)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등록 차량 1940만864대 중 수입차는 90만4314대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수입차의 생산 지역은 유럽이 66.9%로 주를 이뤘고 일본(21.5%)과 미국(10.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100대 중 5대 가가이는 해외 브랜드 마크가 달린 차량인 셈이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1248만3809대) 중 수입차는 35만7589대로 그 비중이 2.1%에 그쳤다.

5년 만에 수입차 대수는 2.5배 이상, 전체 등록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11일 삼성전자 모델이 업계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한 공기청정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업계 첫 저탄소 제품 인증

광주사업장 생산 2개 제품

고, 제품 내 공기의 통로구조를 최적화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저탄소 제품' 인증 기준보다 최대 32%나 탄소배출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20㎡ 제품(AX020FCVANDD)은 94.3kgCo2/대, 37㎡ 제품(AX037FCVAUWD)은 104.3kg Co2/대로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시된 두 제품은 '3단계 공기청정 필터'와 '바이러스 타터'를 채용한 '더블 클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청정기능과 HIN 1등의 유해균까지 제거해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를 만들어 준다. '바이러스 타터'는 광주지역 삼성 협력업체가 OEM 생산한다.

▲ 코스피지수 1932.06 (+8.76)	▲ 코스닥지수 518.90 (+0.43)	▼ 금리(국고채 3년) 2.84% (-0.01)	▼ 원·달러 환율 1071.10원 (-0.10)
----------------------------	---------------------------	-------------------------------	-------------------------------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시행

광주본부세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업무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은 원산지 관리능력 부재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해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는 누구라도 신청가능하며,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소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 면세점 작년 10% 성장...매출 사상 최대

엔저와 불황에도 면세점들은 지난해 1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장률이 20%에 육박하던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역신장한 백화점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 고성장을 유지한 셈이다.

특히 엔저에 따른 일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3조5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인터넷 면세점 매출도 30% 급성장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도 지난해 매출이 2조795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조원 클럽'에 진입했다.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 황칠나라 동반자를 모십니다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용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愛)비법  
Hwang Chil Love Secret